



즉시 배포용: 2024년 1월 2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주립 공원 직원 **AARON J. PETERS**를 추모하며 조기 계양
지시

1월 24일 조기 계양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작고한 Aaron J. Peters를 기리기 위해 1월 24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 청사에 깃발을 조기 계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공원, 레크리에이션, 유적 관리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직원이었습니다. Aaron Peters는 나이아가라 카운티 Golden Hill State에서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에 참여하던 중 1월 17일 치명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aron Peters의 비극적 죽음은 뉴욕주 공무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는 영원히 친구와 가족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며, 저는 그를 알았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Aaron은 공원, 레크리에이션, 유적 관리청에서 3년 동안 근무했고 지역의 로프 구조팀, 벌목팀 등에 소속된 바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주립공원 시스템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그는 작고한 나이아가라 지역 부담당자인 Ron Peters와 최근 지역 사무소에서 은퇴한 Jennifer Ray의 아들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실의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십시오. ny.gov/signup |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